

“科學技術者 優待받는 風土造成에 최선을”



— 金 泳 三 —

民自黨 대표최고위원

존경하는 韓國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閔寬植 명예회장, 金始中회장대행 그리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학계, 연구

계, 산업계의 지도자 여러분!

이른 아침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과 함께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현재와 장래에 대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세계는 이념대결이 소멸되면서 경제전쟁 내지는 기술전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나라의 국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고도기술력의 확보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0년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의 발전이 큰 역할을 한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풍부한 노동력이 더 큰 역할을 한 사실을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한 품질향상과 새로운 상품의 개발없이는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더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국제적 현실을 살펴보면 기술보

“국가경영 大任 맡는다면 반드시 과학기술투자

GNP대비 5%수준으로 높일터”

호주의와 기술민족주의 그리고 기술패권주의 시대로 불리우는 격동의 여파가 우리에게 밀려들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리우환경선언 등은 선진국과의 기술전쟁이 우리의 전후좌우에서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는 생생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와같은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오늘날의 치열한 과학기술 전쟁에서 이기는 길만이 우리를 선진국으로 끌어올리고 세계의 중심부에 진입할 수 있게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기술기반의 취약, 과학기술 인력의 부족, 그리고 과학기술 풍토의 미흡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진기술국으로 가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2000년대에 우리의 과학기술을 선진국 수준에 진입시키는 길이 멀고 험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기술을 다 개발할수는 없습니다. 자원과 인력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고 개발이 가능한 분야가 무엇인지 잘 선택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지혜를 모으는데 정부와 학계와 산업계가 합심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제가 앞으로 국가경영의 대임을 맡는다면 저는 과학기술진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임기중 과학기술 투자를 GNP대비 현재의 2.6%수준에서 5%수준까지 반드시 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고 과학기술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자와 관련기관의 창의와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연구체제를 개선하고 행정지원 체계도 대폭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과학기술인 여러분!

우리는 다가오는 2000년대에는 기필코 선진국대열에 진입해야 합니다. 이와같은 새로운 도전은 과학기술분야에 획기적인 노력없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 일본이 패전의 잿더미위에서 세계 제1의 기술대국,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이면에는 기술개발에 피나는 노력이 있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세계 로봇의 80%, 세계 컴퓨터의 50%를 차지하는 일본의 과학기술 노력이야말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과학기술이 원동력이 됨을 강조하고 여러분과 함께 과학기술개발과 기술전쟁의 기수로서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百萬 과학기술인의 宿願事業 지원기대”



金 始 中
科總 회장대행

존경하는 金泳三 대표최고위원님, 그리고 민주자유당 정책위의장님을 비롯한 당직자, 국회의원 여러분!

國事に 多忙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과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韓國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의 간담회를 마련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지난 1966년 모든 과학기술인의 總意와 國家의 必要性에 따라 창립된 韓國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지난 4半世紀동안 100萬 과학기술인의 단합을 통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主唱하면서 경이적인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우리 科總에서는 과학기술행정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科學技術處의 설치를 비롯하여 國家科學技術諮問會議 설치 등 제도적인 정책건의뿐만 아니라, 최신과학기술 정보교류의 장인 종합학술대회를 1974년부터 19년간 개최하여오으로써 첨단기술의 이전과 우수인력의 유치에 진력하여 왔으며 국가특정연구과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도록 하여 어느정도 기술수준의 향상을 가져오든 물론 일부 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에 까지 도달할 수 있게 하는데 一助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같이 최근의 세계질서는 급변하는 변혁구도속에서도 자국의 생존을 위하여 기술보호장벽을 높이

면서 과학기술에 국운을 걸고 있습니다.

이는 한나라의 과학기술이 국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까.

이에따라 우리 정부에서도 과학기술의 자립을 위한 여러가지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산업구조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2의 跳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이고 다각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진흥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기술투자(R&D)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과학기술인력수

표최고위원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난제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선진국이 되기 위하여는 科學技術을 先進7個國水準으로 進入시켜야 한다」는 大命題에 대하여 여러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인과 온 國民이 다 같이 공감하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2,000年代 先進福祉社會建設」이라는 희망을 온 국민에게 심어주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과학기술의 跳躍만이 관건이라는 해답에 이해를 같이하면서 오늘도 우리 과학기술인들은 새로운 각오와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자리를

“국가발전 향도하는 과학기술의 진흥창달은 국가영도자의 확고한 신념과 철학에 달려있다”

급대책, 정부와 민간 그리고 각 기관의 역할분담은 물론 산업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취약기술 개발방안등 산학협동의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함께 학술활동의 모태인 學會의 육성지원은 물론 특히 국제협력과 진지한 학술발표의 장이 될 우리 100만 과학기술인의 숙원사업인 「과학기술진흥센터」의 건립을 통하여 기술발전을 위한 기반과 과학기술진흥의 풍토가 형성되도록 이 센터의 건립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간청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요정책을 입안하시는 대

별이 다짐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오늘과 같은 대화의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 金泳三大표최고위원님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가발전을 향도하는 과학기술의 진흥창달은 국가영도자의 확고한 신념과 철학에 그 향방이 달려 있다는 사실에 우리 모든 과학기술인은 인식을 같이 하며, 오늘 이 모임이 국가발전에 새로운 跳躍臺가 될 것과 대표최고위원님의 앞날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